



미 증시, 서방국가 미개입 기대감 등으로 장중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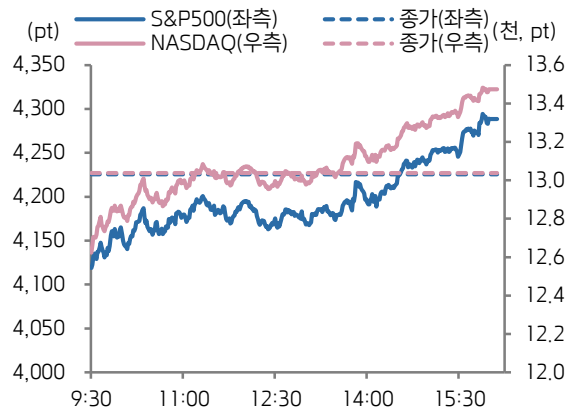
미국 증시 리뷰

24 일 (목) 미국 증시는 우크라이나 전쟁 불확실성 지속에 불구하고 장중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급반등에 나서면서 상승 마감. S&P500 지수는 장 초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으로 2.5% 하락 출발. 하지만 장중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는 빠르게 낙폭 축소. 이날 S&P500 은 장 초반 -2.5% 출발 이후 +1.5%에서 마감, 나스닥은 -3.2% 출발 이후 +3.3% 상승 마감(다우 +0.28%, S&P500 +1.5%, 나스닥 +3.34%, 러셀 2000 +2.64%)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발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공격”이라 비판. “전 세계가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 러시아 기술 수입에 대한 경제제재 발표를 발표하는 동시에 동맹국들과 협조하여 향후 추가적인 대응도 시사. 다만, 직접적인 군대 파병을 통한 군사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G7 국가들은 현지시각으로 24 일 저녁 긴급회담을 통해 러시아에 가할 추가적인 제재들을 논의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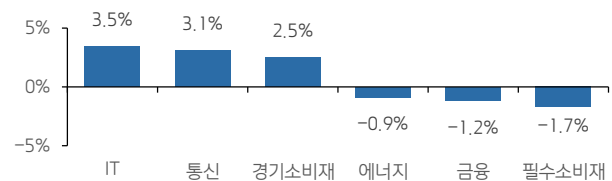
업종별로 IT(+3.5%), 통신(+3.1%), 경기소비재(+2.5%) 등이 상승한 반면, 필수소비재(-1.7%), 금융(-1.2%), 에너지(-0.9%) 등은 하락. IT, 커뮤니케이션스 업종 중심으로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나스닥은 3%대 상승 전환했지만, 다우 지수는 필수소비재, 금융, 에너지 등 업종들의 약세 여파로 강보합에서 마감하는 등 지수별 차별화가 컸음. 한편 반도체 지수는 3.7% 상승.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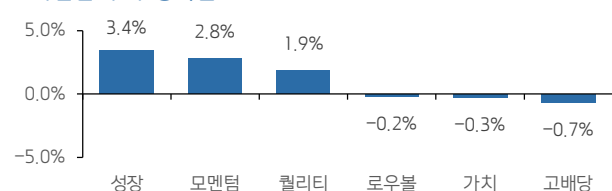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288.70	+1.5%	USD/KRW	1,202.44	+0.75%
NASDAQ	13,473.58	+3.34%	달러 지수	97.07	+0.91%
다우	33,223.83	+0.28%	EUR/USD	1.12	-0.98%
VIX	30.32	-2.26%	USD/CNH	6.32	+0.15%
러셀 2000	1,995.36	+2.64%	USD/JPY	115.55	+0.47%
필라. 반도체	3,399.16	+3.7%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826.94	+2.09%	국고채 3년	2.220	-9.5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620	-10bp
Eurostoxx50	3,829.29	-3.63%	미국 국채 2년	1.570	-3.2bp
MSCI 전세계 지수	686.23	-1.2%	미국 국채 10년	1.965	-2.6bp
MSCI DM 지수	2,909.33	-1.37%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06.86	+0.02%	WTI	93.2	+1.19%
MSCI 한국 ETF	70.63	-1.67%	금	1904.5	-0.3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67%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2.06%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58%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06.9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전쟁 불확실성 완화 기대감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 여부
2. 전거래일 낙폭 과대 성장주들의 동반 반등 시험 가능성
3. 장중 전해지는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뉴스플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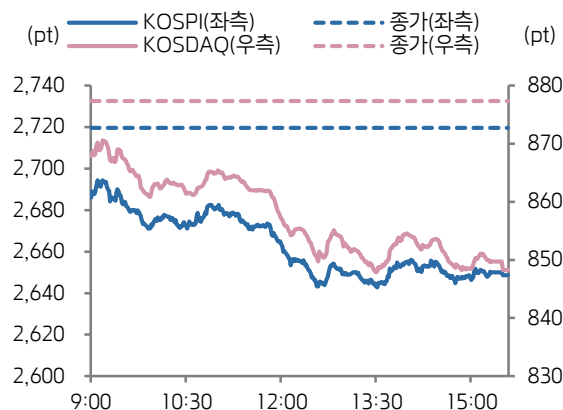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여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긴장 수위는 높지만, 현재 시장참여자들은 전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는 것에 베팅하고 있는 모습. 전면전 발생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장의 해석이 차이가 있으나, 러시아의 (미사일 포격에도) 지상군을 투입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장악하지 않았다는 점은 전시 관점에서 일말의 안도 요인으로 볼 수 있음.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은행의 미국 내 자산 동결, 금융기관 제재, 수출 통제 등 추가 제재에 나선 것은 사실. 그러나 에너지 및 푸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국제통신협회 결제시스템(Swift) 차단이 없었다는 점에서 침공 직후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었던 것 보다는 제재 수위가 낮은 것으로 판단. 더 나아가, 미국, 나토 등 서방국가들은 직접적인 군대 파병을 통한 군사개입 또는 전쟁을 하지 않을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 이는 증시 입장에서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고 볼 수 있음. 향후 상황 전개에 대해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시나리오 접근이 필요한 것은 사실. 국제 정세를 고려했을 때 현시점에서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만 병합한 뒤 추가 군사작전 없이 나토의 동진 제어 등 기존 협상 요구하는 방향이 베이스 시나리오가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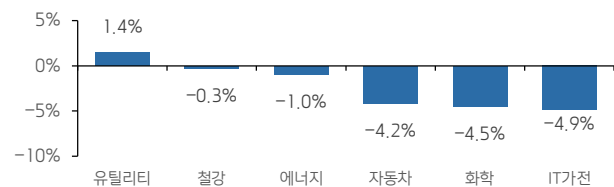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추가 침공 및 서방국가 개입의 전면전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 미국 증시 장중 급등 영향에 힘입어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또한 전거래일 미국 증시가 테슬라(+4.8%), MS(+5.1%), 아마존(+4.5%) 등 성장주들이 동반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만큼, 금일 국내 증시에서도 성장주를 중심으로 우호적인 시장 흐름을 보일 전망. 이처럼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는 긍정적인 전망이나,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수혜를 받았던 일부 시클리컬 업종 및 종목군 간에는 반등 탄력이 차별화될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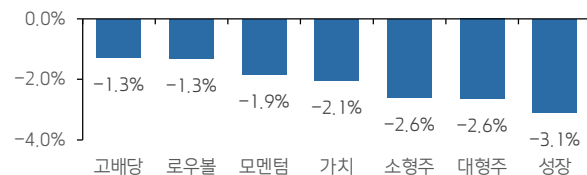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